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 문학 장르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뒤에 숨겨진 문학 장르인 묵시서, 예언서, 서신에 관한 세션 2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성경의 책, 특히 신약의 책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책.

종종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관해 그것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바로 우리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한 것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2세기, 3세기, 4세기부터 교회사를 보면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았고 그 사건들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여는 열쇠이거나 계시록이 바로 그 사건들에 직접 말하거나 예측하고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 맥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나 문학적 유형을 조금 살펴보았으며,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세 가지 문학 형식, 즉 묵시록, 예언,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현대의 아주 가까운 비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문학적 유형은 이 모든 문학적 유형이 John에게 잘 알려졌을 것이고 그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졌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학적 유형이 무엇이었으며 독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우리는 종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의 파국적인 종말, 세계적인 규모의 재난, 세상의 종말, 파국적이고 격변적인 세계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세기에 우리가 1세기와 관련하여 종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들이 그것을 세상의 종말이나 일부 세계적인 재난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문학적 형식. 다시 말하지만, 묵시록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일종의 문학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던 문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실제로는 묵시록이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 1장과 1절에서 나왔는데, 학자들은 당시 이 단어를 취하여 계시록과 유사한 일단의 문학 작품이나 저술물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그러므로 요점은 요한계시록이 속한 구별되고 독특한 특징을 지닌 일련의 저작물이 존재하는 것 같고,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는 단어, 즉 1장과 1절에 나오는 헬라어 *apokalupsis*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학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단어, 즉 종말 또는 계시라는 단어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공개 또는 폭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문학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지만, 존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드러내거나 드러내는 것에 의존하거나 특징을 갖는 문학 작품을 쓰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독특한 유형의 글쓰기를 지칭하기 위해 다시 사용합니다.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유형의 글은 대략적으로 존재했거나 우리가 존재했다고 기록하는 대부분의 묵시록은 대략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200년까지 번성했던 일반적인 문학 유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문학 유형이었을 것이며, 우리 성경의 정경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예는 물론 계시록과 구약성서 다니엘서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종말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에도 종말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유사한 다른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학자들이 종말이라고 부르는 더 넓은 범위의 저술물 그룹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독서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다른 묵시록을 서면으로, 즉 하드 카피로 읽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임스 찰스워스(James Charlesworth)가 쓴 구약의 위경(Pseudepigrapha) 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권은 대부분의 묵시록을 영어로 번역한 모음집입니다. 대략 기원전 200년에서 280년 사이에 다시 쓰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으며 대부분 Google에서 영어 번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품, 에녹 1서, 에녹 2서, 바룩 2서, 에스라서 4서 등의 작품을 접할 수 있으며, 아브라함의 묵시록은 흔한 묵시록입니다. 헤르마스의 목자(The Shepherd of Hermas)는 요한계시록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초기 기독교 묵시록이었지만, 신약성경의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매우 흡사한 작품들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작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우선, 문학 형식으로서의 묵시록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비전에 대한 1인칭 서술형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환상적인 경험을 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이를 자서전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누군가의 환상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들이 적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종종 적용되는 이름, 무엇을 거의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견자는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종말 뒤에 숨겨진 가정은 아는 방법입니다. 종종 과거에 종말은 역사가 기본적으로 악하고 역사의 종말과 정의와 축복을 가져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요구하는 특정 역사관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에 의해 지배되고 대체로 악에 버림받은 현재의 악한 시대와 그것을 대체하고 정의와 축복을 가져올 미래의 다가오는 시대 사이에 일종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역사에 개입하여 역사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묵시문학은 일종의 종말론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역사는 악했고, 역사는 버려졌으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여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며 사실 많은 묵시록을 읽을 때 어쨌든 그 시나리오가 모두 해당 시나리오에 맞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종말 뒤에 있는 더 근본적인 가정은 아는 방법입니다.

종말, 다시 누군가의 환상적 경험에 대한 1인칭 서술. 따라서 환상적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적습니다. 이것의 이면에는 천상세계에 대한 지식이 지상세계에서 보는 것 외에 또 다른 지식, 즉 천상세계에 대한 지식, 우주에 대한 지식, 미래에 대한 지식, 천국의 비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성하고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 즉 하늘 세계에 대한 지식, 미래에 대한 지식, 우주에 대한 지식, 하늘의 비밀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직접적인 계시, 즉 영접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그러므로 이것은 종말 뒤에 깔려 있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천국의 세계와 미래, 천국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말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에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환상적 형태를 통해 전달됩니다. 저자는 이 환상을 받고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사야 6장과 같은 책에서 이미 이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본문과 관련하여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

1장과 2장,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의 마지막 몇 장은 마지막 때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를 언급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른 묵시록들은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천상 세계에 대한 지식과 미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특징을 공유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야만 하늘의 궁창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이 묵시록의 공통 언어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견자가 이 지식,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계시하고 드러내는 이 신성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묵시록은 선견자의 비전에 대한 환상적 설명이거나, 미안하지만 선견자의 비전에 대한 서술적 설명으로, 천국의 지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천국과 미래의 비밀은 저자가 독자들의 유익을 위해 이야기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록하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전을 다시 경험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환상 경험에서 본 것을 어느 정도 다시 경험하도록 허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에서 이미 암시한 두 번째 사실은 종말이 주로 하늘 세계와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있었고 미래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종말에서 발견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환경을 드러내는 정보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계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요한이 하늘에 가서 하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온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은 단지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었고 아마도 우리는 주로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부담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묵시록은 천국의 비밀, 천국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는 알려지거나 인지될 수 없는 사물과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묵시록에서 우리는 선견자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거나, 때로는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에스겔 1장과 2장은 선지자가 올라가거나 하나님과 그의 보좌와 하늘 또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가 있는 하늘 환경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비록 오래된 작품이기는 하지만, 1980년대 초반 크리스토퍼 로랜드(Christopher Rowland)가 쓴 '열린 천국(The Open Heaven)'이라는 오래된 작품을 고려한다면, 이 관점을 매우 유용하게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읽었지만 그 중 일부는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묵시문학의 내용이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은 다양했지만 인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비밀, 하늘의 비밀이 있다고 가정했고, 오직 알려질 수 있는 하늘 세계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전의 형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따라서 우선, 종말은 누군가의 환상적 경험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둘째, 그것은 종종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주로 그 사람이 본 내용으로서 천상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 인류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의도는 오직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종말의 세

번째 특징은 일반적으로 하늘 세계와 미래에 대한 정보가 매우 상징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은유와 상징은 의사소통의 주요 방식이다.

따라서 선견자는 환상적 경험을 갖고 그가 본 것은 상징적 언어로 그에게 전달되며, 그런 다음 그는 환상에서 실제로 본 것과 최대한 유사한 상징적 언어와 상징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수정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아들인 것을 보았다, 왕좌인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저자가 자신의 비전에서 본 것과 최대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가가 환상적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사물을 보거나 상징적 형태로 본 다음, 그것을 적고 설명하면서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그가 실제로 본 것과 최대한 유사하게.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상징주의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저자가 하늘의 현실, 즉 이 지상의 현실을 초월하여 상징적 언어가 적합하도록 하는 현실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에 속하고 지상 영역을 초월하는 현실을 전달하는 데 적합합니다. 또한 상징주의에는 직설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의사소통 수단보다 더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즉, 상징주의는 종종 내용에 관한 한 의사소통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성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감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독자에게도 의사소통하는 데 전체 존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한 상징적 언어 역시 저자가 본 것의 정확한 정체보다는 신학적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에게 더 영향을 미치나요? 누군가가 까다롭고 기만적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조심하세요. 또는 그가 뱀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를 뱀이라고 부르는 것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나처럼 뱀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를 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까다롭고
기만적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더욱 강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징주의는 우리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보는 사람이 현재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주의는
목시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가가 실제로 본 것은 상징적인 형태로
그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자신이 실제로 본 것과 매우 흡사한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언어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종말을 해석하는 것의 일부는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상징성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사소통하려고 하는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상징과 이미지와 씨름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들과 관련된 목시문학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천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목시적인 비전은 독자들에게 현재와 현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종말론은 기본적으로 미래, 특히 독자의 시야를 훨씬 넘어서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목시록은 독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시록의 이면에 있는 가정은 비록 이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가 비전을 갖고 목시록을 쓰게 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상황인지에 대한 평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반적인 상황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지배적인 제국의 억압
아래 사는 것과 같은 일종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종말은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것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시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하늘 영역과 하늘 세계의 정보를 드러내고
폭로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선견자에게 계시된 하늘의 비밀은 그가 인류나 그의 독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 그 뒤에 있는 의도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그들이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이 정보를 갖게 되면, 일단 그들을 위해 기록된 묵시적인 비전을 통해 이 지식을 갖게 되면, 일단 그들이 이제 이 정보와 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그들의 상황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아마도 비전이나 종말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현대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이며 이것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읽으면 이 예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고 조지 비즐리 머레이(George Beasley Murray)라는 학자의 논평에서 그가 요한계시록에 쓴 초기 논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매우 도움이 되지만 그는 정치 만화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는 검색하지 않고도 내가 그 비유를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현대까지 집어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만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치 만화를 읽을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상징적이고 과장된 이미지를 통해 소통하는 정치 만화입니다.

따라서 정치 만화를 읽으면 이미지와 정치적 상황에 익숙하다면 해당 이미지를 식별하고 그 의미와 제안 및 내용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대해 소통한다. 작가는 앉아서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산문으로 쓸 수도 있지만, 만화, 즉 정치적 만화는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논평하거나 심지어 비판하는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동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치 만화를 읽을 때, 이미지가 때때로 과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됩니다.

때로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그들의 머리카락이나 다른 어떤 것 등 과장된 특징으로 식별할 수 있어서 식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종종 동물은 미국의 다양한 정당을 나타내는 표시나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코끼리는 정당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당나귀는 특정 정당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독수리는 미국과 우리가 특정 사물과 연관시키는 데 익숙해진 스톡 이미지인 기타 이미지에 대한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정치 만화의 작가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고 이를 거의 과장하여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하여 당신이 만화 작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정치 만화의 첫 번째는 상징적 성격입니다. 그들은 상징과 은유, 정치 지도자와 국가의 과장된 상상적 구성, 상황 등을 통해 소통합니다. 이것은 실제 인물과 사건을 언급하는 두 번째 특집 정치 만화를 소개합니다.

그것들은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동화 속 언어나 이미지,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문자 그대로의 인물, 사건,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 사건, 장소는 매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언어로 묘사됩니다. 종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종말은 역사와 미래의 실제 인물, 장소, 사건을 가리킨다.

묵시록은 반드시 미래를 언급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묵시록은 독자의 시대와 미래의 역사적 인물, 사건,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묵시록은 사람, 장소, 사건을 매우 상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때로는 과장된 이미지로 묘사하여 요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만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관점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억압적인 정권, 제국, 종말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종말은 당신이 그 상황을 재해석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만화는 종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실제 문자 그대로의 사건과 상황, 사람과 장소를 언급하지만 이를 매우 상징적이고 상상적이며 때로는 심지어 과장된 언어로 묘사하여 요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세상의 종말을 설명할 때 제가 즐겨 사용하는 또 다른 비유는 연극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강당에 앉아 무대에 오르는 연극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보는 것은 그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뿐이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커튼 뒤에서, 실제로 연극을 작동시키는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커튼을 올리고 그 뒤를 보면 무대감독도 보이고,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소품과 의상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바빠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보일 것이다. 연극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해 그리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연극만 볼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죠.

그것은 계시가 어떤 것인지, 종말이 어떤 것인지와 같은 것입니다. 연극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내 주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종말이 하는 일은 커튼을 열어 여러분이 장면 뒤와 무대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 뒤에 있는 현실에 대한 지식은 공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종말의 요점, 즉 이 물리적 세계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커튼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감각으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경험적 세계를 바라볼 때, 종말은 현실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 계시와 이 비전을 통해서만 공개되고 알려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 하늘 세계, 하늘 현실, 그리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보면서 나는 연극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를 통해 처음에는 계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할애합니까?

1세기의 많은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는 가이사가 왕좌에 앉아 있던 로마 제국에 살면서 온갖 형상과 빛을 상기시키는 것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와 다른 신들과 로마 제국의 번영과 평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문화와 상업과 종교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독점적 예배와 충성을 타협하려는 유혹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정치는 모두 함께 얽혀 있고 조심스럽고 밀접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로마제국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험세계에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있습니다.

종말로서 계시록은 휘장을 올리거나 휘장을 들어 그들이 역사의 무대 뒤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는 예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해합니다. 종말론으로서 이 작품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묘사하는 상징, 이미지, 은유를 사용하여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로마와 연합하지 마십시오.

로마에 운명을 걸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충성, 그들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배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누군가의 환상적 경험에 대한 서술적 설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그 환상적 경험은 하늘의 초월적인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셋째, 상징성이 높은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이는 역사상 실제 인물, 장소, 사건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으로나 은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넷째, 묵시록으로서의 계시록은 환상이며, 천국세계와 천국현실에 대한 비전으로서 현재 세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그들이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기능은 다시 말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주요 기능은 격려와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 억압적인 제국이나 사회의 손에 고통받고 있는 포위된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타협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유형의 문학에 특징적으로 속하는 이러한 모든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계시록은 종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전, 하늘 세계와 미래에 대한 환상적 경험에 대한 1인칭 서술형 설명으로, 격려와 경고의 목적으로 그들의 상황에 대한 초월적인 하늘의 관점을 제공하는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전달됩니다. 계시록이 이러한 특징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종말론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있는 묵시록에서 제가 우회한 다른 기능을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천사적 존재의 확산입니다. 묵시록에서 천사가 비전을 가진 사람과 말하고 대화하거나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치 Ebenezer Scrooge를 일종의 비전 여행으로 이끌었던 Charles Dickens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세 영혼과 같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천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이 땅에 심판을 쏟아 붓는 다양한 다른 역할들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처음부터 천사적 존재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묵시록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요한 계시록 전체에서 천사적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분명히 묵시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독특하고 다른 묵시록과 얼마나 다르더라도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묵시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한 가지 특징은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에 쓰여진 대부분의 묵시록이 학자들이 가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비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에녹이나 에스라의 영과 같은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에녹상서와 에녹후서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들은 분명 다른 사람이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에녹의 영으로 글을 쓰고 있고, 에녹의 겉옷을 그에게 부여하고 이 이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권위를 얻거나 청문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므로 에녹이나 에스라 또는 그와 같은 잘 알려진 사람의 이름으로 글을 쓴다고 제안합니다. 계시록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John은 독자들과 함께 자신을 동시대인으로 식별합니다.

특히 1장과 9절에서 그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요한은 에녹이나 에스라, 아브라함, 다니엘 또는 그와 유사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의 이름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존은 자신의 독자들과 동시대인으로서 글을 씁니다.

그분은 그들의 고통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과 동일시하십니다. 이제 그는 그들의 직접적인 상황을 다루기 위해 동시대의 글을 씁니다. 계시록은 종말이다.

나중에 우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읽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이 분명히 속하는 두 번째 문학 장르 또는 문학 유형은 예언의 문학 장르입니다. 사실, 요한 자신은 책 전반에 걸쳐 처음과 특히 끝 부분에서 자신의 책을 예언으로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도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경고하노라.

19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책에 분명히 꼬리표를 붙였거나 자신의 책이 예언으로 읽혀지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나는 그가 책의 시작과 끝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나는 요한이 예언이라고 쓰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를 확신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1세기 기독교 예언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 글을 쓰는 것처럼 분명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나 에스겔서를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위와 진지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언어를 계속해서 인용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존은 그의 이미지와 상징을 어디서 많이 얻나요? 대부분은 구약의 예언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은 10장에서와 같이 두루마리를 먹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니면 그는 예언서에서 바로 나오는 특정 장면이나 위임의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책이 기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에스겔과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 예레미야 등과 같은 선지자들의 전통과

일치하는 예언이자 예언이 되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나는 요한이 종말과 예언을 구별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둘을 구별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아마도 John은 둘을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6장과 에스겔 1장, 2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과 매우 흡사한 환상의 경험을 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자신의 환상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그 구절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책을 구약의 선지자로 읽거나 과거의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라 쓰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자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점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으며, 저자의 정확한 신원을 주장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요한이라고 밝히지만, 교회 역사를 통틀어, 심지어 신약성경을 읽어도 요한계시록의 저자일 가능성이 있는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일 가능성이 있는 요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이자 요한 1서, 2서, 3서와 동일한 저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사도들.

그는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의심했고 같은 요한이 이것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헌과 교회사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언급된 다른 요한들을 찾습니다.

아마도 선지자였으며 이 교회들에 잘 알려진 1세기의 다른 잘 알려진 요한이었을 것이므로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을 밝히는 데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로서 사도 요한에 대한 좋은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 자체를 읽어보면 저자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저자는 편지 형식으로도 글을 쓰기 때문에 특히 흥미롭습니다.

거의 모든 서신을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고린도전서와 같은 어떤 책에서는 독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울과 달리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위를 사도직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구약의 선지자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리차드 보컴(Richard Bauckham)이 말했듯이, 요한은 구약의 예언 전통의 정점에 글을 썼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절정에 이르고 성취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의 권위를 분명히 주장합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에 따라 글을 썼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과 성취에 도달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특정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대개 우상을 쫓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종종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유배되어 포로로 잡혀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위로와 격려, 경고의 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진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한 저자는 선지자가 언약 집행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위반할 위험이 있거나 위반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상기시켜 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백성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와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다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요점은 선지자가 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미래를 말해주기 위해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점쟁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불안을 진정시키고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 타로 카드나

손금 점쟁이처럼 선지자의 글을 자주 읽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함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단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백성에게 알려 주기 위해 장래의 일을 말하는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특정 기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도록 그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을 약속하면서도 그들이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거부할 경우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고취시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주변의 불경건한 나라들과 제국들을 비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황에 관해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불경건하고 압제적인 제국들을 폭로하고 비판하여 그것이 그들의 심판과 제거를 가져올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주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언약 관계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언했지만 그들이 자주 했던 일은 세상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더 넓은 목적을 배경으로 현재 상황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선지자들이 독자의 시대나 가까운 미래의 사건을 자신의 존재와 세계의 지평선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말하고 나서 매우 빠르게 그 내용을 묘사하는 사건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의 결론. 다시 말하지만, 선지자들이 자주 했던 일은 독자들의 현재 상황이 결국 전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더 넓은 의도와 목적에 비추어 어떻게 나타나고

이해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 문학의 두 번째 특징은 선지자나 예언 문학이나 예언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단지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환상적 형태의 문학도 아니었습니다. 예언은 분명히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으로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 역사상 실제 사건과 인물, 장소에 관한 것이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의 세 번째 특징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그들을 신실함으로 돌아오게 하고, 타협과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불경건한 자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제국과 국가. 둘째, 그것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적을 묘사합니다.

셋째, 예언은 주로 신실한 자와 불신실한 자 모두를 위한 심판과 구원에 관한 주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의로움을 약속하시고 구원으로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타협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제국과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과 마찬가지로 예언은 주로 격려와 경고의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지자는 주로 미래를 예측하고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정렬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경고하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게 남아 있도록 격려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난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다시 경건하지 않은 악인에 대한 임박한 심판과 심판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국가와 제국.

다시 말하지만, 그 계시는 이러한 모든 특징을 특징으로 합니다. 요한이 자신의 작업을 예언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심지어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책의 맨 처음과 끝 부분에 계시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예언으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시가 분명히 속하는 세 번째, 즉 세 번째 문학적 유형은 서신이나 편지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종종 1번과 2번에 대해 이것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계시가 종말이라는 사실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특히 4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에서 22까지의 숫자 중 문자와 유사한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종말 또는 종말론적 예언이며 그곳에서 모든 환상과 이상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이 마치 편지, 1세기의 편지 또는 서신처럼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시작과 끝은 바울의 편지 중 하나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가령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요한이여 이 말을 들으라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 일곱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오실 것과 그 보좌 앞의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사 자유하게 하신 이에게로 오실 것이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거기서 멈추고, 지금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구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그 구절들에 속하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하십시오. 저자인 요한의 신원과 일곱 교회의 독자들의 신원, 그리고 인사나 축복, 은혜와 평강 부분이 있는데, 이는 바울의 편지들 중 일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편지 중 하나와 매우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서 첫 번째 독자인 일곱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편지가 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분류하는 것의 의미, 더 나아가 요한이 편지의 형태로 기록하고 자신의 뜻을 취하는 것의 의미는 그가 환상적 예언, 묵시적인 예언, 다음과 같은 형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독자들과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1세기 편지나 서신의 틀 안에 넣어서 기록하고 있는 묵시적인 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학자, 대부분의 해석가 및 1세기 신약 문학 학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편지의 특징 중 하나가 신약 학자들이 부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때때로 쓰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매우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 또는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편지가 작성되고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 서신처럼 요한계시록도 특정한 문제와 위기에 대응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독자들이 위기에 직면하도록 하려는 소위 유대교도들의 매우 구체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십시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후원 제도, 영적 엘리트주의와 이원론, 그리고 교회에 침투한 기타 문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지로서 우리는 계시록이 교회 내의 특정한 문제나 위기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독자가 관련성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편지가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독자가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편지는 독자들의 특정한 요구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겨냥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그 시작과 끝이 매우 유사하고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바울의 서신처럼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기에는 편지의 형태로 무엇이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이 자신의 묵시록을 기록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목시적인 환상적 경험과, 교회에 보내는 예언적 메시지를 편지의 형식과 틀, 즉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위한 문학적 형식으로 기록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독자의 필요와 상황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자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특정 문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참여하는 것 같고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초월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비전에 대한 서술적 설명입니다. 그것은 예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경고하고 또한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선포입니다.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현대 상황 및 현대 독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편지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편지는 의미가 있었고 매우 가끔이었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문학적 형식으로 소통하는 책임입니다. 지난 몇 분 동안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어나 일종의 명확한 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요한이 쓰기로 선택한 장르와 1세기 독자들에게 친숙했을 장르, 묵시록, 예언, 편지를 기술하여 장르를 설명합니다.

이제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유형의 문학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묵시록, 예언서, 서신이라는 세 가지 문학 장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방식을 지배해야 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책을 해석하는 방식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해석학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묵시록, 예언, 편지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읽는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참여하는 이 세 가지 독특한 문학 유형에서 발생하고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해석 원칙을 풀어보는 데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뒤에 숨겨진 문학 장르인 묵시서, 예언서, 서신에 관한 세션 2입니다.